

다산포럼

새해 달력을 걸면서



황 상 익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양력을 쓰기 시작한 것은 꼭 120년 전인 1896년 병신년(丙申年)부터다. 1872년에 음력을 폐지하고 양력을 채용한 일본보다는 24년 늦었다.

정부는 개국(開國) 504년 9월 9일(양력 1895년 10월 26일) “정삭(正朔)을 개정하여 태양력을 사용하되 개국 504년 11월 17일로써 505년 1월 1일을 삼는다”라는 조칙을 공포했다. 두 달 뒤인 11월 15일(양력 12월 30일)에는 양력 채택을 재차 확인하고 연호(年號)를 사용한다는 조칙을 반포했다. 조칙이 그대로 시행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은 ‘관보’다. 관보 제214호는 발행일을 ‘건양원년 1월4일 도오’(建陽元年 一月四日 土曜)라고 표시했다. 이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변경없이 양력은 국가의 공식 역법으로 자리 잡았다.

그런데 요일을 처음 사용한 것은 언제일까? 요일은 양력에만 쓰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당시 정부는 양력 1895년 4월 25일부터 음력에 요일을 표시했다. 관보 제1호의 발행 날짜는 ‘개국 504년 4월1일 목오’(開國 五百四年 四月一日 木曜)로 되어 있어, 양력보다 8개월 앞서 요일부터 사용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지금 보면 조금 우스꽝스럽지만 그만큼 정부가 근대적 개혁에 조바심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관보 제1호’란 발행호수를 붙이기 시작한 것이 이때라는 말이다. 근대식 정부 소식지인 관보는 양력 1894년 7월 23일(일본군이 경복궁을 무도하게 점거한 날이다)부터 발행되었고, 정식 연호는 아니지만 그와 비슷한 구실을 하는 ‘개국’이 쓰이기 시작한 것은 8일 뒤의 일이다. 여기서 개국은 태조 이성계가 1392년에 조선왕조를 연 것을 뜻한다. 관보를 발행하면서 그동안 공식 문서에 써 오던 청나라 연호를 버린 것은 뜻깊은 일이다.

양력을 채택하면서 잠점이 된 것은 국경일을 양력으로 바꿀 것인가, 음력으로 놓아 둘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1896년 무렵의 중요한 국경일은 개국기원절(음력 7월 16일), 고종의 생일(萬壽聖節, 음력 7월 25일)과 국왕 즉위일(興慶節, 음력 12월 13일)이었다. 그리고 1897년 10월 12일 대한제국이 선포되고 고종이 황제로 등극하면서 이 일을 기념하는 계천기원절(繼天紀元節, 음력 9월 17일)이 추가되

었다.

논의 끝에 국경일은 계속 음력으로 쇠기로 정해졌다. 이들 국경일은 ‘국가의 경축일’이지만, 정부보다는 국왕 및 왕실과 관련된 날들이다. 40년 넘게 음력으로 지낸 임금님의 생일을 낫선 양력으로 바꾸는 것은 무엄한 짓일 테다. 500년 동안 음력 7월 16일로 알고 있던 왕조 창건일을 느닷없이 변경하는 것도 조상님들을 못 할 짓이었을 것이다.

1896년 이래 관보는 물론 독립신문·황성신문 등도 날짜를 양력으로 표기했다. 반면에 왕실기록이라고 할 ‘승정원일기’(갑오개혁 이후 승선원일기·규장각일기 등으로 명칭이 바뀌어 1910년 경술국치까지 기록되었다)와 ‘일성록’은 음력을 유지했다. 조칙을 국왕 자신은 따르지 않은 셈이다. 근대 서양의료를 국가의 주된 의료체계에 삼으면서도 왕실은 전통의술을 고수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비싼 봉급으로 분신 등 외국인 의사를 왕실 주치의로 고용했지만, 실제 진료는 전의(典醫)들이 담당했다.

매해 음력 7월 25일에는 고종의 탄신을 경축하는 행사가 온 나라에서 대대적으로 펼쳐졌다. 그날이 되면 관공사와 학교가 문을 닫았고 신년도 휴간했다. 1907년 까지 그랬다. 하지만 1908년부터는 사정이 달라진다. 국경일에서 제외되었다는 뜻은 아니다.

1년 전에 새로 황제가 된 순종은 1908년 9월 8일(음력 8월 13일) 아버지 고종에게 생신 축하 문안을 드리기 위해 덕수궁으로 갔다. 고종의 생일이 바뀐 것이다. 고종이 태어난 임자년(1852년) 7월 25일을 양력으로 환산한 9월 8일이 새로운 생일이 되었다. 7월 22일, 탄신일과 기념경축일을 양력으로 바꾼다는 조치가 내려졌기 때문이다. 궁내부(宮內府) 대신 이름으로 공포된 것이지만, 실제로는 일제의 작품이다. 승정원일기와 일성록의 날짜 표기는 조금 앞선 1907년 12월부터 양력으로 바뀌었다.

고종은 진실하지 못하다고 일제와 이토 히로부미에게 적혀 속절없이 황제에서 쫓겨난 뒤에 55년을 지켜 온 생일마저 빼앗겼다. 생일로 여기지 않았을 날에 탄신 인사를 받는 태황제의 마음은 어땠을까? 인간적으로 동정이 갈 수도 있지만 결국 자업자득이다. 아버지 대원군의 섭정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30년 넘게 절대 권력으로 한 나라를 통치해 온 사람이 누구 탓을 하라.

올해도 사흘밖에 남지 않았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잃고 뒤죽박죽이었던 한 해여서 어서 보내고도 싶지만 역시 아쉬운 게 세월이다. 병신년 새 달력을 걸면서 혼용무도의 암흑시대가 끝나고 진실이 제 뜻을 되찾는 새해가 되기를 기원하고 다짐한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기 고

교향곡 무등산(Symphony Moodeungsan)



김 선 철  
작곡가·T&T 예술기획 대표

필자의 교향은 부산이다. 부산 사람이 유학시절 피아니스트를 만나서 부부의 연을 맺게 된 것이 계기가 되어 1995년 귀국과 동시에 이곳 광주에서 지금까지 생활하며 활동하고 있다.

광주는 전혀 연구도 없었고, 단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듣고 아는 정도였는데, 함께 유학한 아내가 먼저 광주의 대학에 자리를 잡게 돼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었다.

광주를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던 중 빛소리 오페라단(단장 최덕식)에서 장단연주로 2000년 5·18광주민주화운동 20주기를 기념하여 창작오페라를 무대에 올리겠다고 필자에게 작품을 의뢰하였다. 대본은 고 조태일 시인과 김준태 시인이 5·18관련 시들을 선별해 시극(詩劇)으로 구성하였고, 그 시를 바탕으로 오페라

‘무등동동’이 탄생하였다.

당시 최덕식 단장님은 매년 오월이 되면 민중가요 중심의 음악만 연주되고 5·18관련 순수 클래식 음악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안타까워 이 오페라를 기획하게 되었다고 한다.

사실 5·18문화재단이나 광주시에서 먼저 나서 5·18정신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음악을 만들었어야 하는데 민간 오페라단에서 시작했다는 것이 아쉬움이 남는다.

광주시와 광주문화재단에서는 몇 년 전부터 광주를 대표할 브랜드 공연물을 기획하고 있는데 대부분 일회성 공연으로 끝나고 있다.

그 중 한 작품이 영국 에딘버러축제에 가기 위해 4개월 만에 급조되어 만든 ‘자스민 광주’로, 진도 찻집곳에 시나위, 타악, 무용, 디지털 영상, 퍼포먼스를 가미한 작품이지만 작품성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막을 내렸다. 상설공연으로 자리 잡겠다고 시작한 공연은 기획력 부족으로 시도한 것에 만족해야 했다.

하나의 완성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가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 공연물이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4개월이란 짧은 시간에 완성도 높은 공연을 기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더욱이 이 지역 인재를 찾아서 진행하는 것이 아

니라 수도권에서 이미 인정받고 있는 인재를 섭외해 추진하다보니 이 지역 사람들은 철저히 배제되어 누구를 위한 공연물인지 말이 많았다.

필자는 1999년 작곡한 ‘무등동동’을 시작으로 광주를 소재로 한 작품을 구상하고 있다. 광주를 대표하는 공연물을 만드는 목적보다는 이 지역을 알리는 순수음악이 없다는 것이 아쉬워 시작한 것이다.

광주하면 떠오르는 것은 ‘무등산’이다. 지위나 계층에 관계없이 모두가 평등하다는 5·18정신을 잘 나타내고 있는 단어가 ‘무등’이고 이 정신의 근원은 무등산이다. 또한 광주하면 떠오르는 것이 5.18 광주민주항쟁이다. 이미 영화, 연극, 무용 등 여러 장르에서 5·18을 주제로 작품을 만들었지만 순수음악에는 ‘무등 동동’ 외에 생각나는 음악이 없다. 윤이상의 ‘광주여 영원하라’가 있지만 오랫동안 이념 문제로 국내에서는 연주가 거의 되지 않았다.

5·18하면 떠오르는 음악은 순수클래식보다는 민중가요 ‘임을 위한 행진곡’이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5·18 민주화운동 중 희생된 윤상원과 노동운동가 박기순의 영혼결혼식을 위하여 1981년 추모곡으로 작곡된 곡이다. 2003년 5·18 기념

식이 정부 행사로 승격된 뒤 2008년 이명박 정부 첫해까지 ‘임을 위한 행진곡’은 본 행사에서 공식적으로 제창되었는데 2009년부터 여러 이유에 의해 제창이 금지되고 합창 또는 식전행사에 불리도록 하여, 지금까지도 5·18 관계자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제창이 금지된 이후 ‘임을 위한 행진곡’ 주제로 피아노독주를 위한 변주곡과 현악과 합창단을 위한 교향곡 등을 구상하였다. 변주곡은 초안만 잡은 상태이고, 올해 초 광주문화재단의 2015년 창작집중 지원 사업에 교향곡 ‘무등산’이 선정되어 29일 초연된다.

필자는 교향곡 ‘무등산’에서 광주의 아픈 역사를 예술작품으로 승화시키려고 하였고 그 중심소재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삽입하였다. 교향곡 ‘무등산’을 통해 잊혀져가는 5·18정신 ‘무등’이 다시 시민들 기억 속에 살아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피카소의 ‘게르니카’, 루이지 노노의 ‘중단된 노래’ 등 많은 예술가들이 사회적 이슈를 예술 작품으로 승화시켜 이를 세상에 알렸다. 이 작품을 통해 80년이 지난 역사적 사건이지만 사람들 기억 속에 남아 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우리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사라진다.

정준 특·특

후회하지 않을 삶을 위해



박 도 형  
광주대 일반대학원 문예창작과

필자는 광주대 문예창작과를 졸업한 뒤 대학원에 진학하면서 조교로 활동해 왔다. 조교로 일하며 좋았던 것은 계속해서 글을 쓸 수 있다는 것. 후배들과 함께 소통하고 자극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2년간의 조교 활동은 올해를 끝으로 마무리하게 됐다.

시원하지만 한편으로 아쉬운 감정이 앞선다. 군복무를 포함해 2007년부터 9년간 많은 추억과 배움이 쌓인 이 학교를 떠나게 돼 그런 것 같다. 추억은 많지만 그중 하나를 되새겨본다.

우리 학교는 1년에 두 차례 문학제를 연다. 학생들이 쓴 시를 교내에 전시하는

를 마련했다.

질문들을 받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껏 답변했다. 그 자리에서 몇 가지 느낀 점이 있었다면, 출업을 앞 둔 후배들부터 신입생들까지 내 인생의 온점에 대한 물음들을 많이 했다는 것이다. 고등학교를 마치고 우리 과를 오게 된 계기, 조교를 끝내고 앞으로의 계획 등 마침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질문이었다.

질문들을 받으며 과거의 내 모습들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던 것 같다. 나는 왜 문예창작과를 왔던 걸까? 나는 왜 희곡을 쓰고 있는 걸까? 스스로 물음에 공통적인 답변은 ‘좋아서’였다.

지금 아니면 언제 이렇게 미친 듯이 글을 읽고 또 쓸 수 있을까? 20대라는 시간이 지나면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게 될 것 같았다. 후회를 하고 싶지 않았다. 하고 싶은 걸 못하며 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나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20대 대부분이 그렇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다.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그게 부질없다고.

는 것이라고 말한다. 충분히 이해한다. 현대 사회는 어떻게 보면 숫자 위에서 만들어지고 있으니 말이 한다. 그렇다고 두려움 때문에 몇 명의 학생을 진학시켰다는 진학률로, 대학교는 취업률로, 기업은 수익률로 성과를 나타내는 사회가 되었으니, 거기에 맞춰가야만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는 일이 부질없진 않다.

계속해서 글을 쓸 것인가? 후배들이 던지던 많은 질문 중에 마지막 질문이었다. 나는 그렇다고 답변했다. 이제 30대를 바라보는 시기가 되어서 인지는 모르겠지만 돈을 벌면서 쓸 생각이라고 말했다. 학생이라 불릴 시기에 마침표를 찍게 됐으니까.

어떤 과정에 마침표를 찍는 것은 흥분분하게 털어내는 시기다. 또 다른 시작을 해야 한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끼기도 한다. 그렇다고 두려움 때문에 그 자리에 멈춰있을 순 없다. 살아야 하고,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말이다. 그리고 그 마침표 속에서도 진정으로 하고 싶은 걸 해 나가고 있다면 이야기는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진행되고 있으리라.

社 說

고속도로 ‘달빛’ 좋은데 왜 ‘광대’ 고집하냐

지난주 확장 개통된 옛 ‘88고속도로’의 정식 명칭은 ‘광주~대구 고속도로’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기점과 종점 지역을 고속도로명으로 정한다는 원칙에 따라 붙여진 이름이다. 한때 줄여서 말하면 ‘광대 고속도로’가 되어 썩 어감이 좋지 않다. 그래서 모두들 ‘달빛고속도로’로 바꿔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달빛’은 대구의 옛 지명 ‘달구벌’과 광주의 순우리말 ‘빛고을’의 첫 글자를 딴 것이다. 어감이 부드러울 뿐만 아니라 달빛의 정취를 느끼게 하는 낭만적인 단어이며, 동서화합과 영호남 교류 확대라는 상징성을 지닌다.

따라서 고속도로 명칭을 ‘달빛’으로 변경하자는 데는 광주와 대구가 모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구시와 광주시는 개통식을 앞두고 여러 차례 명칭 변경을 건의했다. 광주시의회와 대구시의회도 “지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명칭을 바꿔 논란의 종지부를 찍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요구한 바 있다.

대구경실련과 광주경실련 등 시민단체도 이에 뜻을 같이했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왜 그럴까. 왜 양 지역 주민들이 모두 원하는데도 받아들이지 않는 걸까. 알고 보니 하찮은 규정이 발목을 잡고 있다. 국토부 예규 관리지침 11조에 따르면 고속도로 노선명은 기·종점(예: 용인 서울산)을 우선해 사용하되 통과 지역의 지리적 위치(예: 서해안선)를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국토부는 노선명 원칙에 어긋나는 ‘달빛고속도로’를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규정에 얽매어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영혼 없는 공무원’의 예를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말한다면 지나친 과언일까.

국토부는 당장 어감마저 이상한 ‘광대 고속도로’를 ‘달빛 고속도로’로 바꿔야 한다. 무엇보다도 그대들 공무원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이에 반대하는 이가 없지 않은가.

아시아문화전당 첫술에 배부를 순 없지만

개관한 지 겨우 한 달이 지난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의 미래에 대해 미리 염려하는 것은 선부른 감이 있다. 하지만 애초 꿈꿨던 ‘문화발전소’로 만들기 위해서 초기부터 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문화전당은 지난 11월25일 공식 개관 후 한 달 만에 23만9970명이 4개월(문화창조원·문화정보원·아시아예술극장·어린이문화원)을 관람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입장객 6만 9871명, 지난해 광주비엔날레 관람객이 17만16922명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흥행은 일단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다.

그러나 전당의 심장 역할을 할 문화창조원은 방문객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좀 더 세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문화콘텐츠 창작·제작의 거점이 될 창조원에는 4개월 가운데 가장 적은 5만 1123명이 들었다. 과학과 예술의 경계를 넘나드는 융·복합 테크놀로지를 선보인 창조원에 대해 전문가들은 호평

했으나, 난해함 때문인지 일반인들은 외면한 것이다. 이에 비해 어린이문화원엔 최다인 6만8880명이 다녀갔는데 공연과 체험 위주로 운영해 인파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1개월의 흐름만으로 앞날을 단정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우선 눈에 들어오는 것은 전시·공연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냐는 조바심이다. 전당은 문화 향유와 함께 창작·제작 기지로 만드는 게 요체다. 창조된 작품을 전 세계에 확산시켜 아시아를 대표하는 문화산업으로 발전시킨다는 전략인 만큼 첫걸음부터 맥을 잘 짚어 대응하는 게 중요할 것이다.

더불어 문화전당은 국가 운영 기간을 5년 한시로 정한 상태여서 문화산업 토대를 잘 다져야만 홀로서기가 가능하다. 대중들도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에 힘써 문화상품으로 발전시키고, 지역산업에도 기여하려는 다양한 노력이 어우러져야 전당의 설립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無 等 鼓

언제부터 하루를 24시간으로, 1년을 365일로 정했을까? 영국 스톤헨지 유적을 보자면 꽤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수렵 단계를 벗어나 한 곳에 정착해 농사를 지으면서 언제 씨를 뿌리고 수확해야 하는지를 알기 위해 정교한 시계 또는 달력의 필요성이 더욱 컸었을 것이다.

현재 널리 쓰이는 태양력(양력)이 제정된 때는 1582년이다. 가톨릭 수장인 교황 그레고리 13세가 기존에 쓰이던 로마시대 ‘율리우스력(舊)’의 역법상 오차를 수정한 것으로 ‘그레고리력’이라고

꾸었다. 고종은 “이번에 정삭(正朔=정월 초하루)을 고치고 연호를 세운 것은 500년마다 크게 변하는 시운(時運)에 대응하여 집이 국가를 흥흥하는 큰 위업의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조선왕조실록 고종 33년 1월 11일)

마지막 남은 달력 한 장, 한 해가 저문다. 매일같이 뜨고 지는 똑같은 태양이고 하루였지만 사흘 뒤면 새해다. ‘시교황 그레고리 13세가 기존에 쓰이던 로마시대 ‘율리우스력(舊)’의 역법상 오차를 수정한 것으로 ‘그레고리력’이라고

아듀! 2015

우, ‘세배’)라는 시구에 공감하는 요즘이다.

올해는 ‘메르스’(중동호흡기 증후군), ‘성안종 리스트’ 파문, 역사 교과서 국정화, 네덜 지진, IS 테러 등 국내외적으로 다사다난(多事多難)한 한 해였다. 먼 훗날 ‘응답하라 2015’는 어떤 모습으로 그려질까? 숨가쁘게 한 해를 달려온 모든 이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새해에는 이기심보다 이타심이, 반목보다 화목이, 분열보다 화합이 이뤄지고, 부정의 언어보다 긍정과 행복의 단어가 많이 쓰이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한다.

아듀! 2015.  
/송기동 문화2부장 song@

<b>光 州 日 報</b>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程厚植</b>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간)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238 (우편번호 61482)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8005) 편 집 부 2200-649 (FAX 222-4938) 정 치 부 2200-632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대표 FAX 222-4918) 문화미디어부 2200-664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FAX 227-9500) 다 지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우편물 유통 10,000원 1부 500원	
<b>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b>			